

# kiri CEO Brief

CEO Brief는 보험산업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보험회사 CEO와 유관기관의 기관장분들께만 제공되는 리포트입니다.

##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현황과 시사점

### 요 약

최근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일본 및 EU 등에 이어 미국은 「GENIUS Act」를 통해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제정 논의에서 비은행 기업의 발행 허용 여부 등을 두고 논쟁 중임. 스테이블코인은 저비용 실시간 결제와 Web3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서 경제적 기대가 크지만, 금융불안과 자금세탁 등 리스크에 대한 통제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기존 마련과 함께 우선 실증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제도를 보완하고, 발행 규모 및 자금세탁 방지 역량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등 리스크 중심의 점진적이고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함

### 1. 최근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현황

- 최근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빠르게 추진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입법 논의가 활발해짐
  -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이 미 국제 수요를 확대하며 달러화의 디지털패권을 유지토록 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입어 2025년 6월 상원에서 「GENIUS Act」가 통과되며 민간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있음
  - 유럽연합은 2024년 MiCA를 제정하여 단일통화 연동형(EMT) 및 복수자산 연동형(ART)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인가제도와 준비금, 보고 의무 등의 엄격한 규율체계를 마련함
  - 일본은 2023년 지급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했으나 아직 상업적으로 구현된 사례가 없어 현재 규제의 개선과 정비가 논의되고 있음. 이 밖에 싱가포르(2023년), 홍콩(2025년) 등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함
- 우리나라는 2023년 제정된 디지털자산기본법 1단계에서 자금세탁 방지, 이용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규율했으며,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함
  - 최근 발표된 의원 입법안은 자기자본 5~10억 원 이상의 은행 이외의 법인도 발행이 가능하며, 대통령 직속(또는 금융위 산하)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은행 이외 법인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시 금융불안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정부 인증이라는 착시를 불러일으켜 위험이 증대될 것이라고 비판함

## 2. 스테이블코인의 개요 및 연혁

-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나 특정자산에 연동되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블록체인의 결제 및 거래에 사용되는 디지털자산을 의미함
  - 테더(USDT), 써클(USDC)과 같이 법정통화에 연동된 경우가 일반적이며, 금 등 특정자산에 연동되거나 (예: PAXG), 복수의 자산 바스켓에 연동된 경우(예: Libra(이후 Diem으로 변경) 구성)도 있음
- 최초의 스테이블코인은 2014년 테더가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의 가격변동성이 심해 결제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적합하다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1 USDT=1 USD”를 표방하며 출범하였음
  - 2019년 페이스북이 복수통화의 바스켓형 스테이블코인인 Libra 계획을 발표하자 글로벌 금융규제 당국이 금융 안정성과 통화주권의 위협이 된다며 반발하였고 페이스북은 결국 계획을 철회함
  - 한편, 2020년 담보 없이 알고리즘 기반으로 가격안정을 시도한 테라(TerraUSD)가 출시되어 급격히 성장하였으나, 2022년 5월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고 가격조절 시스템이 붕괴되며 시장의 큰 충격을 야기함
- Libra 계획과 테라사태의 여파로 주요국에서는 복수통화 바스켓 연동형과 알고리즘형을 제한하는 등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및 제도화에 착수하였음

## 3. 스테이블코인의 혜택과 리스크

-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 시 화폐를 대신하는 거래수단으로 개발되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해외송금 및 오프라인에서의 지급결제수단으로의 활용도 빠르게 늘고 있는 상태임
  - 해외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 비율이 2025년 5월 기준 84%에 달함. 다만, 우리나라는 2018년 가상자산거래소별 제휴은행을 통하여 실명 확인된 계좌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원화 중심의 거래구조가 정착됨(한국은행(2025), 『금융안정보고서』)
-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저비용으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며 스마트계약을 통해 조건부 지급이 가능한 프로그래머블 머니로의 기능이 크게 기대됨
  - BIS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화된 결제수단은 결제의 최종성을 확보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건부 지급 기능을 통해 자산이전·담보관리·대출과 연계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고 피력함(BIS(2025), “The next-generati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 나아가 스테이블코인은 Web3라고 하는 분산형 디지털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됨
  - Web3는 Web1의 '읽기 전용'(일방향 정보제공)과 Web2의 '읽고 쓰기'(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용자 참여)에서 발전하여 '읽고 쓰고 소유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탈중앙화 온라인 생태계'를 의미함
  - Web3의 대표적 요소인 탈중앙화 금융(DeFi) 및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등은 모두 스마트계약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신뢰가능한 디지털 가치를 필요로 하므로 스테이블코인은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코인런이 발생하여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으며,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및 외국환관리의 유효성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 BIS는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자별로 상환 책임이 다르고 담보 자산에 따라 상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등 통화로서 필요한 '단일성(Singleness)', '탄력성(Elasticity)', '무결성(Integrity)'의 3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중앙은행과 은행의 예금을 토근화한 2단계 화폐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주장함
  - 또한 Web3는 가명성(Pseudo-anonymity) 및 탈중앙 운영 등으로 법적 주체가 불명확하여 자금세탁 방지 및 공정 과세가 곤란하므로 실질적인 신경제 발전동력으로 자리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음
  - 다만, 역사적으로 부분 지급준비로 인한 불안정성을 감독 및 예금보험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은행예금에 비하여 스테이블코인이 더 안전하며 제도화 및 규제를 통해 이들 문제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음

#### 4. 점진적이며 탄력적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 스테이블코인은 경제혁신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금융불안 및 자금세탁 등 리스크의 통제를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주요국의 추세를 감안하되 리스크 중심의 점진적이며 탄력적인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발행요건 마련과 함께 실증 프로젝트(또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기준을 보완함
    - 예: 싱가포르는 2022년 스테이블코인 규제원칙을 발표하고, 2023년 법제화 전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했음
  - 발행 규모에 연동하여 별도의 강화된 요건의 인가절차를 마련하는 등 리스크 중심의 규제체계를 확립함
    - 예: 미국 GENIUS 법안은 100억 달러 이상 발행 시 주법 대신 연방규제 적용을 의무화하고, EU의 MiCA는 "중요 발행자(Significant EMT)"로 지정되면 ECB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공동 감독을 받음
  - 자금세탁 방지 실효성을 점검하여 규제를 차등화하고, 리스크 통제 확인 후 DeFi 연계 및 해외 유통 등을 허용함

## Stablecoin Institutionalization: Trends and Implications

### ABSTRACT

Major economies are institutionalizing stablecoins. Following Japan and the EU, the U.S. is promoting the GENIUS Act for a private-led framework. Korea is debating the second phase of the Digital Asset Basic Act, including issuance by non-bank entities. While stablecoins enable low-cost, real-time payments and support Web3 infrastructure, they carry risks like financial instability and money laundering. A phased, risk-based approach is needed—starting with pilot projects and tiered rules based on issuance size and AML capacity.

### 1. Recent Regulatory Developments on Stablecoins

Major economies are rapidly advancing stablecoin regulation, and Korea is also engaging in active legislative debate. In June 2025, the U.S. Senate passed the GENIUS Act, which promotes private-sector-led stablecoin issuance, based on the view that stablecoins can boost demand for U.S. Treasury securities and sustain the dollar's digital hegemony.

Earlier, the EU adopted MiCA in 2024, introducing a licensing regime and strict requirements—such as reserve backing and reporting obligations—for both e-money tokens (EMTs) and asset-referenced tokens (ARTs). Japan legalized stablecoins via the 2023 Payment Services Act, though no commercial use cases have emerged, prompting regulatory refinement. Singapore(2023) and Hong Kong(2025) have also enacted stablecoin regulations.

In Korea, the first phase of the Digital Asset Basic Act(2023) addressed AML, consumer protection, and market fairness. In the second phase, the focus has shifted to stablecoin regulation. A recently proposed bill allows issuance by non-bank entities with a minimum capital of KRW 500 million–1 billion, under the oversight of a presidential(or FSC-affiliated) Digital Asset Committee. The Bank of Korea has voiced concerns that non-bank issuance could pose financial stability risks. Critics also warn that regulation may create a false perception of government endorsement, heightening public risk exposure.

## 2. Overview and Evolution of Stablecoins

Stablecoins are blockchain-based digital assets designed to maintain a stable value by pegging to fiat currencies or specific assets. Most are fiat-backed—such as USDT and USDC—though asset-backed (e.g., PAXG for gold) and basket-based models (e.g., the former Libra, later renamed Diem) also exist.

The first stablecoin, Tether, was launched in 2014 to address the volatility of crypto assets like Bitcoin, promoting itself with the peg “1 USDT = 1 USD.” In 2019, Facebook proposed Libra, a basket-based stablecoin, but withdrew the plan following strong opposition from global regulators over risks to monetary sovereignty and financial stability.

In 2020, TerraUSD introduced an algorithmic model without collateral. Although it saw rapid growth, its collapse in May 2022 due to a loss of market confidence severely disrupted markets. These episodes prompted regulators to restrict algorithmic and basket-based models and initiate formal regulatory frameworks for stablecoins.

### 3. Benefits and Risks of Stablecoins

Originally designed as a transactional medium in crypto markets, stablecoins have expanded into remittances and offline payments. As of May 2025, they account for 84% of volume on major global crypto exchanges. In Korea, however, the 2018 mandate requiring real-name bank accounts at crypto exchanges led to a KRW-centric trading structure instead (Bank of Korea 2025, “Financial Stability Report”).

Built on blockchain, stablecoins enable low-cost, real-time payments and programmable money via smart contracts. According to BIS (BIS 2025, “The Next-Generati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tokenized payment instruments can improve finality, enhance efficiency, and support innovation in asset transfer, collateral management, and lending.

Stablecoins are also viewed as critical infrastructure for Web3—a decentralized online ecosystem evolving from Web1 (read-only) and Web2 (read-write) to Web3 (read-write-own). DeFi and DAOs, key components of Web3, rely on smart contracts and require trusted digital value, making stablecoins essential.

However, risks include potential coin runs with systemic spillovers and reduced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and FX controls if usage becomes widespread. The BIS argues that private stablecoins lack key monetary attributes—singleness, elasticity, and integrity—due to issuer-specific redemption risks and heterogeneous backing. It advocates a two-tier system using tokenized central bank and bank deposits.

Web3 also raises AML and taxation concerns due to pseudonymity and decentralized governance. Still, some argue that, like fractional-reserve banking, stablecoin risks can be managed through regulation and institutional safeguards such as supervision and deposit insurance.

#### 4. A Gradual and Adaptive Approach to Stablecoin Regulation

Given the potential of stablecoins to drive innovation and their associated risks, Korea should adopt a gradual and risk-based regulatory strategy, aligned with global trends.

First, issuance requirements should be established alongside pilot programs or regulatory sandboxes to monitor risks and iteratively refine standards. For example, Singapore announced stablecoin principles in 2022, operated a sandbox, and formalized the regime in 2023.

Second, a tiered framework should apply stricter licensing and oversight to large issuers. The U.S. GENIUS Act mandates federal oversight for issuers with over USD 10 billion in circulation, while the EU's MiCA designates large EMT issuers as "significant," subjecting them to joint supervision by the ECB and ESMA.

Lastly, AML effectiveness should guide differentiated regulation. Regulatory easing for DeFi integration and cross-border distribution may be considered once sufficient risk controls are verified.

Seong IL Choi, Research Fellow  
choil@kiri.or.kr